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4월 16일(주일) 제1438호



예수사랑부 겨울캠프에서 최경문 자매(오른쪽)와 선생님이 활짝 웃고 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행복드림콘서트’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오른다. 오는 5월 8일(월)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세시봉 윤희주 장로, 크로스(가스펠 보컬 밴드)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4월 23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참가신청 하고 반드시 SNS 카카오톡에서 ‘행복드림 2023’을 검색해서 채널 추가해야 한다. 행복드림콘서트 집회 안내 및 공지알림, 문의 등을 카카오톡 채널에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요청자 기도모임도 이어진다. 4월 24일(월) 오후 8시 온라인(Zoom), 5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선교관 지하 1층)에서 요청자 기도모임이 열린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 2023’ 채팅창

로잔운동과 세계관학교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 ‘2023 봄학기 포럼’을 개최한다. ‘로잔운동과 세계관’을 주제로 4월 25일(화)과 5월 2일(화)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학교, 한국로잔이사회)가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보는 다원주의’,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보는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강의한다. 하단 QR 코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문의: 02-3215-3713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

나눔도 하고, 장애인도 돕는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이 4월 16일(주일)과 23일(주일) 진행된다. 서빙고, 양재, 수원, 대전, 인천, 강동, 부천온누리교회(16일만)에서 열린다.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을 기증하면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 서빙고, 양재, 부천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윌스토어 기증함에, 수원, 대전, 인천, 강동은 목회행정실로 기증 물품을 가져오면 된다. 콜센터(1533-0091)로 전화하면 굿윌스토어 직원들이 방문해서 물품을 수거하기도 한다.

문의: 1533-0091

“장애인의 행복, 예수님의 기쁨”

15~16일 장애인주일 ... 특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서빙고, 양재, 부천, 인천, 강동 사랑부 교사 모집

4월 15일(토)과 16일(주일)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선입견과 편견, 차별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가 이어진다.

장애인주일 예배 특순이 풍성하다. 서빙고 일요일 1, 2부 온사랑합창단, 3부 온누리사랑챔버, 4부 사랑부 OMW(사랑부 부모들로 구성된 합창단), 양재 일요일 2부 온누리사랑챔버, 3부 양재 사랑부가 특순을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한다. ‘사랑, 배려, 친절, 관심’을 주제로 만든 포스터를 교회 곳곳에 게시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도들의 작은 실천방법을 쉽게 설명해준다. 바른 명칭 사용하기(장애우,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명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장애인 화장실 우선 사용하도록 양보하기,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 먼저 내리고 탈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해 주기, 보조자 없이 혼자 다니는 발달장애인을 발견했을 때 행동 사항 등을 알리고 실천방법을 독려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카페에서는 박혜신 작가(발달장애인 화가) 그림 전시회가 4월 23일(주일)까지 이어진다.

사랑부 교사 모집도 한다. 서빙고, 양재, 강동, 부천, 인천 사랑부를 섬길 교사를 모집한다.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홍보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 문의하면 된다. 사랑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장애인을 위한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범식 전도사(인천 사랑부)는 “사랑부 지체들을 격려하는 마음과 따뜻한 말, 손길

을 건네는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7면).

온누리교회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예배교육공동체가 있다. 서빙고 꿈사랑부(미취학~중등부 장애아동), 사랑부(고등부~20대 발달장애인), 예수사랑부(30세 이상 발달장애 청장년), 양재 사랑부(미취학~성인 발달장애인), 강동 사랑부(미취학~20세 이상 발달장애인), 부천 사랑부(7~30세 발달장애인), 인천 사랑1부(발달장애 아동), 사랑2부(발달장애 청소년 및 청장년)가 있다. 장애인 예술 활동 부서도 있다. 장애인들이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자존감 회복하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는 ‘온누리 사랑챔버’, 합창하면서 사회성을 향상하고, 비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온사랑합창단’ 등이 있다.

문의: 02-3215-3263, 02-570-73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풍당’ 참가자 4월 23일까지 모집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풍당’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3일(일)까지 네이버폼(QR코드 참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 달려라풍당’은 4월 29일(토)부터 5월 28일(주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진다. 걷기, 러닝, 라이딩,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등 거리 측정이 가능한 운동에 참여하고, 누적된 거리만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은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키즈 콘텐츠 제작과 풍당교회학교 사역에 사용된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을 위한 시상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달려라풍당데이 참가자 선착순 1,500명에게 기념 티셔츠를 제공한다. 최장거리상 5명에게 갤럭시워치5, 최고나눔상 1명 스마트TV, 차세대어린이상 5명 어린이 자전거, 그룹상 등을 시상한다. 최고나눔상의 시상품은 수상자의 이름으로 풍당교회학교 사역에 기증한다. 이 외에도 ‘달려라풍당데이 이벤트’, ‘어린이 참가자 후원 이벤트’, ‘포토 이벤트’ 등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CG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부활, 세상을 바로 잡으시다

고린도전서 15:20~28

부활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자연이 열린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미래가 달린 사건입니다. 부활은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사건입니다.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자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반역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군사령관과 같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그 중심에 있는 사탄을 멸하시고, 반역에 휩쓸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역을 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을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를 의롭다하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란 그 이후 계속되는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모든 영혼은 예수님처럼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나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는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믿지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육을 악하게 여기는 이원론에 빠져서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부활하신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이며,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처한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이가 죽음에 처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자 마

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22~23절).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의 인구가 수십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뿐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하게 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순종하심과 의로 우심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분과 같이 부활하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이유입니다.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셨기에

둘째, 부활을 통해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24절).

부활을 통해 멸하시는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입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만드신 권세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세상을 반대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권세들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권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엡 6:12).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권세와 권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반역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휩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드러내셨고, 부활을 통해 그 악한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

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4-15).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히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악한 권세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권세를 아버지께 돌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는 일이 부활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둘 때까지 다스리셨다

셋째,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둘 때까지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발아래 둔다고 할 때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안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25-27절).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일과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을 설명합니다.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고,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원수가 누구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정복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적을 네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시 110:1).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하나님의 원수를 그 발아래 두는 정복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로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옛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메시아가 오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더욱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면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가 능력으로 임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올 것을 기대했는데,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충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메시아가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로 잡으셨습니까? 옛 세상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과정 역시 다스리고 계십니다.

‘D-데이’, ‘V-데이’는 2차 세계대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1944년 6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결정적인 승리가 연합군에게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독일군을 이긴 것이 결정적인 날(Decision Day)입니다. 그때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후인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이 함락될 때 독일이 정식으로 항복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연합군이 승리한 ‘V-데이’입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1944년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결정적인 사건을 ‘D-데이’라고 한다면, 1945년 5월이 승리의 날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역에 대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을 바로 잡으신 사건

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그때 ‘V-데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오셔서 끝내시지 왜 두 번에 오시는가?”, “처음 본 그림이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왜 다시 오실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한 번에 오셔서 끝냈다면 우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한 번에 오셔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면 그것도 승리입니다. 그러면 악의 무리, 반역자의 무리에 속해 있는 영혼들도 함께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영혼들을 그렇게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D-데이’의 사역, 세상을 바로 잡으셨지만, 완전히 바로 잡지 않은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옛 세상과 새 세상이 중복되는 기간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단지 미래를 위한 소망(Hope for the Future)만이 아닙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Hope from the Future)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만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미래로부터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소망과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

미래를 위한 소망과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

망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미래를 바랄 때 현재에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이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고, 원수가 완전히 소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원수 소탕 작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왜 한꺼번에 소탕하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속해서 수중 들고 있는 영혼들이 함께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원수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하심은 미래에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온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실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이 바로잡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아버지께 그 권세를 바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두시는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28절).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신 까닭은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권세를 통해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돌려드릴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이 나타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바로 잡으셨고, 바로 잡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계획을 망가뜨리고, 피조 세계를 장악해 가려는 모든 원수가 제거되고 있는 때입니다. 언젠가 이 임무가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D-데이와 V-데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승리는 끝났습니다.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이 D-데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V-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역사의 D-데이가 되어서 세상을 바로잡으신 사건이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V-데이에 완전히 세상을 바로 잡아 하나님이 만유의 주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더욱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소망하며

미래에 나타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환원불가능한 복잡성

생명이 진화에 의해 생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분명하게 논하려면 생명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생명을 다루는 학문 분야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명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해부학과 조직학에서는 형태의 측면에서, 생리학에서는 생명의 생리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측면에서, 유전학에서는 유전 정보가 조상에서 후손으로의 흐름을 중심으로, 생화학에서는 물질의 대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려 한다. 각 학문 분야의 생명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물인 탄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주변 환경과 분명한 경계를 가진다. 셋째, 주변 환경의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넷째,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후손을 생산한다. 다섯째, 주변의 물질을 섭취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단세포 생명체와 다세포 생명체로 구분한다. 단세포 생명체에는 박테리아를 비롯한 단세포로 생명을 유지하는 미생물들이 있고, 다세포 생명체에는 동물과 식물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생명과학 연구자들은 가장 간단하고 작은 생명의 단위가 세포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며, 세포는 앞서 설명한 생명의 정의를 만족시킨다.

J. Craig Venter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는 사람 DNA의 염기서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밝히겠다고 1990년부터 미국과 영국 정부 주도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때 Venter는 ‘TIGR’ (The Institute for Genome Research)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는 혁신적인 게놈시퀀싱 기술을 개발해 인간의 DNA 유전자 정보를 특허로 등록, 사업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안해 민간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았다. 그 돈으로 정부 주도의 다국적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사람이다. 미국 클린턴 정부가 인간의 유전 정보에 대해 특허를 불허함으로써 그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으나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공로를 정부측 컨소시엄과 함께 공유하는 영예를 얻었고,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인간게놈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Venter는 자기 이름의 연구소(J. Craig Venter Institute, JCVI)를 설립하고 인간의 수명연장, 환경문제, 합성생물학 등 세 가지 연구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투자를 받았다. 그중에서 합성생물학은 한 생명의 DNA를 다른 생명체의 DNA와 섞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

“과학의 연구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간단한 생명체조차 종류별로 있는 형태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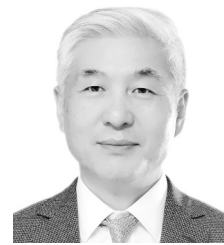
생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진화론적 생명의 개념을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 그 첫 프로젝트는 지구상의 가장 간단한 생명체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구상의 가장 작은 생명체로 ‘Mycoplasma genitalium’이라는 미생물을 선정했는데, 그 유전자의 수는 525개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장균에서 그 DNA를 제거한 다음 M. genitalium의 DNA를 그 안에 삽입해도 이들이 여전히 살아서 세포분열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그들이 합성한 첫 생명체 ‘JCVI-syn1.0’이라 명명하고 2016년 <Science>지에 발표했다. 다음 단계로는 525개의 유전자 각각을 하나씩 제거할 방법을 고안했고, 각 유전자를 순서대로 제거했을 때 최소한 473개의 유전자는 남아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나 그 이후 면밀한 조사결과, 7개가 더 추가된 480개는 있어야 원래의 세포형태가 유지되면서 살아있는 것을 관찰했다. 이것을 ‘JCVI-syn3.0’으로 명명하고, 2021년 <Cell>지에 발표했다. 종합하면, 전체 525개 유전자 중에서 480개는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더 줄일 수는 없다는 결과이다. **JCVI의 연구결과는 Oparin의 제안으로 진화론자들이 널리 받아들인 ‘원시수프 이론’ 즉, 단백질과 핵산의 농도가 높아진 원시수프 속에서 이들이 우연히 결합해 가장 간단한 생명인 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을 부정하는 결과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단백질 몇 개로만 구성된 간단한 세포에 단백질이 조금씩 더 추가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세포로 변화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합성한 JCVI-syn3.0은 480개의 단백질이 동시에 한꺼번에 하나의 세포라는 아주 작은 구조 속에 조직화되어 있어야 생명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생명현상이 멈추게 되고, 똑같은 세포가 다시는 만들어질 수 없게 된다.

생명체처럼 자신과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후손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조금씩의 형태 변형이 축적되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후손을 생성하는 과정이 차단되면 생명 탄생의 첫 단계부터 우연에 의지해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이클비히가 주장했던 지적설계의 ‘환원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을 2021년 JCVI 연구팀이 가장 간단한 세포를 만들려는 끈질긴 시도 끝에 다시 발견한 사실이다. 구성 성분을 하나라도 줄이면 원래의 기능을 못하는(irreducible) 복잡한(complexity) 구조를 생명체는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주 단순한 것에서 조금씩 더해져서 복잡하게 되었다는 진화는 성립될 수 없다. **과학의 연구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간단한 생명체조차 종류별로 있는 형태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지지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교회의 미래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미국인본주의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협회 로고에는 협회의 철학을 담은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신의 존재 없이 선을 이룬다”(Good without a god).

이 짧은 글이 교회 밖 세상에서의 일상적 세계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막강한 영향력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이 선언문은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나 비기독교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첫째, 우주의 존재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류는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며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결과로 출현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인본주의자들의 근거는 진화론이다. 인본주의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표준과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는 현재 이 협회의 회장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라일 심슨의 저서 <나는 왜 탄생 하였는가?>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에게 존재의 의미는 철저하게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며, 본인 행복의 항상성 상태(homeostatic state)에 이르는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정신이나 영혼을 부정하는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물질이나 몸으로 대변되는 현실적 가치일 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은 이들의 세계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매우 취약할 수 있는 사고와 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자녀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인격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부모들의 상품 가치 상승화 수단으로 전락해 왔다. 오슬로 국립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그의 저서 <우승열패의 신화>에서 1990년대부터 한국인의 모토는 경쟁과 생존으로, 한국인의 생존기원 원리는 힘의 숭배 사상인 사회진화론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교회라고 이러한 시대적 사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나라 10대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10대들의 사망원인 1위가 전체 원인 중에서 41%나 차지하는 자살이라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다.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가족을 1위로 대답한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대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 청년 세대들에게는 기성세대로부터의 부의 상실감에 대한 피해의식이 매우 강하게 존재한다. 부모 세대를 위한 자아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누리고 싶은 우리나라 청년세대에게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결혼과 자녀출생의 기준도 자신만의 행복이므로 이는 자연히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기독교인의 인구는 이미 2012년부터 더 가파른 감소율로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현재적 세계관 사조가 뿌리깊게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세대를 단지 인구절벽의 원인이 되는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압축성장 시기의 기성세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인본주의를 비롯한 세속적 세계관과 전쟁하는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파스하게 다가가야 한다.

영화 속에 나오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은 흥미로운 영화 주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될 매우 긴급한 교회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련된 양복과 신사화가 아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기 위한 투박한 군복과 군화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바로 라이언 일병이요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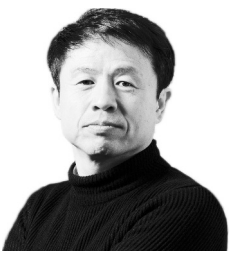
이단·사이비 OUT! 2.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접근(교제) 주의하고, 전화번호 남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실상과 폐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파장이 거세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현혹하는 4개의 사이비 종교(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실체와 피해를 다뤘다.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폐단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연재 '이단·사이비 OUT!' 지면을 마련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점과 그 대처법을 설명한다. 그 두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실상과 폐해다.

/ 편집자 주



탁지원 소장
(월간 현대종교 대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는 사망한 안상홍을 하나님,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와 하늘 어머니로 신격화하는 이단 단체다. 안상홍 교주는 ‘안식교’의 영향을 받았고, 본부는 분당에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이단이기도 한데, 10만 명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교회 등을 매입하고자 힘을 쏟고 있고, 국외에서는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포교하고 있다. 해외 선교에 이단 대처에 대한 기도를 맞물려 하지 않으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 산하기관으로 섯별선교원(유치원), 엘로힘연수원, 오라서포터즈, 메시아오케스트라, 도서출판 ‘멜기세덱’이 있다. 오래전부터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의 시작

교주 안상홍은 1918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1947년 안식교에 입교했고, 1962년 안상홍 외 23명이 안식교를 탈퇴하고, 2년 뒤 1964년 부산에서 ‘하나님의교회 예수증인회’를 창설했다. 이후 교세 확장에 힘써 1965년부터 많은 교회를 설립했는데, 67세에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안상홍 사후인 1985년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추종자들은 단체명을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로 개칭하고 봉천동으로 본부를 이전했다. 그 이후 1988년, 1999년, 2012년 등 계속되는 시한부 종말설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지금의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로 또다시 개칭해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주장하는 교리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이단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첫째, 초대 교주인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 안상홍’이라고 주장한다.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침례를 행하고 있다.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새 이름’을 안상홍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교회



판교에 위치한 하나님의 교회.

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나의 새 이름”(계 3:12)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뜻한다.

둘째, ‘하늘 어머니 장길자’를 주장한다. 하나님의교회는 성령을 안상홍이라 하고, 신부는 ‘장길자’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의 어머니가 장길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은 ‘유대교’와 ‘초대교회’를 비교하는 비유다.

셋째, 하나님의교회는 안식일(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말씀을 인용해 본문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지키었다’라고 변조했다. 또 구약의 모든 규례와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고 한다. <골로새서> 2장 14~17절을 보면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폐한 바 뉘게에 더는 꾀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넷째, 하나님의교회는 십자가를 우상 숭배로 정죄하고 있다. 우리는 상징과 우상, 기념과 숭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십자가는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한 소중한 상징물 이긴 하나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숭배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하나님의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고, 초봄(4월)이라고 주장한

다. 안상홍도 초봄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탄절을 초봄으로 잡는 것은 안상홍이 새 연약인 유월절을 회복하는 육체로 온 예수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교회의 활동과 대처법

하나님의교회 신자 수는 현재 10~20여만 명 이상 모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400개 교회와 해외 2천여 개 처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선교에 영향력이 큰 온누리교회가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외 선교사들과 활발한 이단 대처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하나님의교회는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다. 대표적인 단체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구 새생명복지회, 명예회장 장길자)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의 봉사활동은 환경보호, 아동과 노인복지, 자원봉사, 구호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교회가 심각한 이단이 아닌 유명 사회봉사단체로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어린이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일반 교회 부설기관처럼 하나님의교회 부설로 ‘섯별선교원’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섯별선교원 메인과 면에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이들로’라는 깔끔한 문구가 공감대를 일으킨다.

하나님의교회의 포교방법은 2인이 짝을 지어 가정집을 방문하거나(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거리에서 설문조사 등의 포교를 하는 것인데, 절대로 처음부터 안상홍과 장길자를 전하지 않는다. 이들은 ‘멜기세덱 성서교육원’에서 나왔으며 “기독교 교리와 그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하며 접근한다. 설문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성명, 직업, 나이,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거나 성경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먼저 침례를 받게 한다. 그리고 조금씩 교리를 가르친다.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 하늘 어머니도 있지 않겠나?”며 안상홍과 장길자를 성경 이상의 구원자라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어머니 사진전’ 등을 통해 포교하고 있다. 특히 30~40대의 여성들이 신자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학부모 관계를 통한 포교도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종말이 오며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인침을 받은 144,000명 이외에 모조리 멸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해를 바꿔가며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유포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마찰로 가출하는 신도들로 인해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되어왔다. 1999년에는 Y2K 등의 사회여론과 이에 편승한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교회와 피해자들의 실상이 각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99년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년이 마지막 때라고 한 번 더 주장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처럼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나님의교회는 유월절 준수 여부와 절기를 지키는 날짜 등을 들고 접근한다. 이단들은 표면 교리(선전교리)와 이면 교리가 있는데, 감춰진 이면 교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가르친다. 이단들이(이단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도) 설문조사 등으로 접근할 때는 반드시 교제하는 것을 주의하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는 안 된다. 아울러 이단들과 마주쳤을 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는 진짜인데 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저들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단, 사이비 문의 및 제보
현대종교: 031-830-4488,
mrmad@hjdongkyo.co.kr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가정에서의 성교육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자녀의 성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자라면서 엄마와 아빠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성정체성을 찾아간다. 그것을 ‘동일시 현상’이라고 한다. 자녀들은 서너 살 때 자신과 타인을 향한 태도를 발전시키고,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동성인 부모를 보기 시작한다.

보통 아들은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하고, 딸은 엄마처럼 되기를 바란다. 아들은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라고 외친다. 그레

서 사춘기를 지나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하다. 공부나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남자다움’에 대한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다.

딸의 경우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 딸이 어떤 모임에 참여하거나 무슨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로 도와줘야 한다. 이때 어머니는 도와주고, 아버지는 “너 참 멋있다. 내 딸이 정말 이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예쁜 숙녀가 됐구나. 아빠가 데이트 한번 신청하고 싶은데?”라며 딸의 ‘여성다움’을 칭찬하는 말을 꼭 해줘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건강하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딸이 생리를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축하해 주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조금은 두려워하는 딸에게 엄마가 생리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엄마와 아빠가 모여 함께 축하해 주는 일종의 성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는 딸을 한 사람의 숙녀로 대우해 줘야 한다. 딸에 대한 말씨

도 조심하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해 주는 것이다. 물론 부모로서 훈계나 권면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성숙한 자녀로 인정해 주고,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라는 것이다.

아들이 몽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면 아버지는 좋은 시간을 잡아 아들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몽정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기하고 음경의 감각이 점점 더 민감해져 자위행위를 시작한다. 더구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인 영상물이 우리 자녀에게 무차별한 성적 공격을 하고 있다. 자녀들이 완전히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자녀를 위한 성교육 자료가 많이 있다. 부모가 그 자료를 참고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

모가 직접 설명해주는 게 더 좋다. 자녀에게 교육할 때는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다. 특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때는 단호하면서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등을 보여 주는 게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위행위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자녀가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길을 가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성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성을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

“성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성을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

“예수님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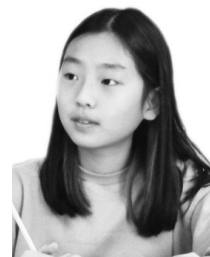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배운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헌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남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저는 제가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라는 말씀이 가장 외달랐

습니다. 왜 크고 편한 문을 놔두고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더니 저에게 큰 문은 세상으로 가는 문, 좁은 문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믿고, 그 문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수치

와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죄를 짓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예수님의 헌신적인 삶과 특별한 사역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구하은 학생
(서빙고 꿈팡 초동1부)

나의 소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빙고 꿈팡 2학년 5반 정윤지입니다. 저는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더 깊이 만나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3월 6일 월요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

억에 남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기 좋게 만드셔서입니다.

또 제가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생긴 제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로 인해서 행복

해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성경쓰기를 끝까지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윤지 학생
(서빙고 꿈팡 유년1부)

글그림 명난희

44. 부활의 의미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4월 10~11일 본문, 삼하 1:8~12, 삼하 1:23~27



1.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나요?(삼하 1:8-12)
 - ①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다.
 - ②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온 백성에게 알리며 잔치를 열었다.
 - ③ 자신의 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슬퍼했다.

2.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친구였나요?(삼하 1:23-27)

- ① 아버지 사울 왕을 따라 다윗을 괴롭혔던 친구
- ②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친구
- ③ 어려움에 빠진 다윗을 도와주고 사랑해 준 진정한 친구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장애인주일’ 뜻깊게 보내는 방법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

장애인의 삶 격려하는 마음, 따뜻한 말, 손길



이범식 전도사
(인천온누리교회
사랑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장애인의 날 즈음 ‘장애인주일’을 지키고 있다. 새로 사랑부에 온 성도의 어머니께 4월 16일이 장애인주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 주일에는 사랑부 예배가 없는 건가요?”라고 물으셨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은 주인공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인데, 장애인의 날은 함께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우리는 장애인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사랑부’

우리나라에는 263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이 선천적 원인이 아니다.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는다. 이들은 재활 과정과 치료를 통해 비록 불편은 있을지언정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애를 입기 이전의 생활이 아니다.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이 가능하면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일반 성도들(비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랑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주로 ‘사회성 장애’라고 불리는 발달장애인이 그들이다.

나는 인천온누리교회 사랑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다. 온누리교회 사랑부는 35년 역사를 자랑한다. 나는 사랑부 교사를 하고 싶어서 온누리교회에 왔고,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사랑부 교사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지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데 믿음만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인천온누리교회 사랑부를 섬기고 있다. 주중에는 1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도심을 여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을 만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박은빈)나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다운 증후군 배우정은혜) 등의 영향으로 대중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다운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관계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상적인 발달 단계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를 통칭한다. 발달장애는 선천성 장애로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 원



이범식 전도사(사진 왼쪽 첫 번째)와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도심을 여행하고 있다.



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하는 환경에서 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화 된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진학을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예절, 규범, 약속(교통신호, 문화, 상황에 따른 역할 등)을 다양하게 습득해야 하고, 따라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그것을 혼자 습득하고 따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들 옆에는 늘 함께하는 부모님의 헌신이 있다. 자신의 아이가 커가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곧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서 천천히 하나씩 가르치고, 아이들이 낮은 환경에서 인내하며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신다.

발달장애인들이 갈 만한 곳이 많지 않다. 각각이 예민하고 ‘인지부하’가 있는 이들에게 문밖은 위협적인 상황의 연속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랑부 선생님들이다.

사랑부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선생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드린다. 초등학교 발달장애인을 둔 어느 어머니의 고백이 짝하다. 발달장애인 자녀와 함께 가면 환영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교회는 편하게 올 수 있고 환영해 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사랑부 선생님들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한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부 친구의 마음을 대신 고백하고, 기도하기도 한다.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맞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춤추며 찬양한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사랑부 지체들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기 때문이다.

“복 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마 5:8).

그 깨끗한 마음에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렇게 산만하던 아이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 눈빛을 반짝이며 쳐다본다.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인천온누리교회 사랑부 한 형제님은 토요일 아침부터 “내일 교회 가자!”라며 부모님께 선포하고, 한 자매님은 혹시나 엄마가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주말마다 눈치를 살핀다고 한다. 사랑부 친구들이 교회 오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모님이 동행한다.

장애인주일은 장애인이 주인공

나는 주중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함께 놀자’ 도심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심을 여행하는 발달장애인은 이 투어에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손을 의지해 세상을 본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보고, 오래된 도시를 보기도 하고, 변화한 쇼핑가를 구경하기도 한다. 번잡한 도심 속 카페에 앉아서 회원처럼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맛집에 가서 유튜버처럼 음식을 먹기도 한다. 여유롭게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경하기도 한다. 부모님과 함께 카페에 가는 것도 좋지만, ‘함께 놀자’ 선생님과 가는 카페는 분위기가 다르다. 보호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안전하게 우리가 사는 도시를 즐기도록 돕는다.

‘함께 놀자’ 도심여행 프로그램을 하면서 유의하는 점이 있다. 비장애인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거나 따로 다니는 것과 다르다. 발달장애인은 사회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조용히 해야 할 때는 조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받아

야 할 때도 있다.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베풀 기회를 준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사회 속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요 9:2-4a).

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소명의 자리에서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약한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장애인주일은 장애인이 주인공이다.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하듯이, 어버이날 부모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듯이 장애인주일에는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환대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며 살아온 그들의 삶을 격려해주는 마음과 따뜻한 말, 손길이 필요하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에게 “넌 봄날의 햇살 같아”라고 말한다. 우영우에게는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듯이 주의 사랑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장애인주일이 되기를 바란다. 자유롭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부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

기도의 작은 거인들!

어르신들의 기도 그리고 힘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있다. 외형적으로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잠재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뜻한다. 온누리교회에도 작은 거인들이 있다. 새하얀 머리카락, 구부정한 허리, 왜소한 체격의 어르신들이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작은 거인들이다.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를 만났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윤선영 권사, 현경자 권사, 황승희 집사, 민정원 권사, 임복순 권사, 박옥자 권사).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뜨거웠을까?”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채 애처롭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 한나가 떠올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이 여인들이 드리는 기도로 뜨겁게 달궈졌다.

수많은 기도의 여인 틈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성도들이 있었다. 제대로 펼 수 없는 구부정한 허리 때문에 엉거주춤 일어나 손뼉 치며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었다. 그 어르신들을 본 순간 그들이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얼른 예배드리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로 불렀다!

무릎선교기도학교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선교사들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릎으로 선교하는 ‘무릎 선교사’다. 무릎선교기도학교에는 13개 조가 있다. 조별로 선교지를 정하고, 그 선교지를 마음

에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들과 동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남아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의 이야기가 더욱 특별하다.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의 평균 연령은 78세다. 무릎선교기도학교에서 최고령 조원들이다. 그러나 80세 가까운 평균 연령이 무색할 정도로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2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박옥자 권사,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용인 수지에서 2시간 넘게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임복순 권사가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의 주춧돌이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7년 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윤선영 권사, 남편이 소천한 충격으로 인지 장애가 생겼는데, 예배의 자리만큼은 절대 잊지 않는 민정원 권사도 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그저 은혜”라고 고백하며 연로한 권사들을 섬기는 황승희 집사도 빼놓을 수 없다. 현경자 권사는 조장을 맡아서 때로는 딸, 때로는 언니, 때로는 엄마처럼 15년째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를 섬기고 있다.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 조원들이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매주 2시간 거리를 달려 기도하러 오는 임복순 권사가 그 비결을 알려줬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남묘호렌계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딸이 전도해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구원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박옥자 권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들을 수 있었다.

“2005년 예루살렘으로 2500여 명이 평화행진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딸 부부가 저 몰래 신청해서 갔습니다. 갈릴리호숫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무릎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앉지도, 걷지도 못하던 제 다리로 행진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무릎선교기도학교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가 필요한 선교지와 사람, 교회와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만난 나의 하나님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만남이 귀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 민정원 권사의 소원은 날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지난해 남편이 소천하고 그 충격으로 인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억해내는 게 어렵고 힘듭니다. 아들이 무릎선교기도학교에 저를 데려다줬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80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수두룩합니다. 그 은혜만큼은 절대 잊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와 시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하나님을 잊는다면 내일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선교지 영혼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승희 집사는 권사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저는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힘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가 아주 많

았습니다. 그런데 무릎선교기도학교에 와서 권사님들의 신앙과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면 복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의심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그 자리에 은혜의 감격이 채워집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무릎선교기도학교 2조가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변하고, 선교지가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선영 권사는 남편의 임종을 바라보며 기도의 힘을 경험했다.

“제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갑자기 폐장암에 걸려 3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방문해주셨는데 ‘나는 죄지은 게 하나도 없다’면서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무릎선교기도학교와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기도가 닿았는지 남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면서 기도가 강력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현경자 권사는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국제학교에 비전헌금을 봉헌하던 몇 년 전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살면서 여러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하던 선교지에 크리스천 국제학교가 생긴 일만큼 뿌듯한 경험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몇 년 이어오다가 잊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어느 주일날 예배에서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비전헌금을 봉헌한다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했잖아’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일하신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 11:43)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기 전에 완전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다. 제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 기적에 대한 이전 경험(회당장의 죽은 어린 딸이 살아난 일,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관에서 다시 일어난 사건)이 있어서인지 나사로의 부활에 그렇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끼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자들이 조금만 생각했다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 전의 부활 사건과 차원이 다른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게 되고,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 혈액이 10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뇌조직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아예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도 혈액 순환이 멈춘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이미

심장이 멈추고, 혈액이 응고되어 피가 굳은 부분과 물과 같은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은 나사로의 상태는 이 단계를 훨씬 지나서 몸의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는 상황이다. 이미 나사로의 뇌는 뇌사 정도가 아니라 부패해서 거의 녹아내릴 지경이 됐다. 그런 나사로가 멀쩡하게 일어나 슬퍼하던 자매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죽은 몸을 떠난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하신 정도가 아니다. 썩어가던 몸 자체를 새로운 몸으로 대체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부러진 뼈를 이어주는 것과 다르다. 이미 없어진 뇌를 다시 창조하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나사로의 모든 기억과 지식, 경험이 반영된 뇌를 그대로 다시 창조하셨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몸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정보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몸의 부활은 단지 영혼이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이다.

이집트인들도 몸의 부활을 믿었다.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어 그 몸을 보존하려 했다. 미이라를 만들 때 뇌와 내장 등은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방부 처리한다. 이런 몸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지만, 살아난다고 해도 뇌 없는 인간일 뿐이다. 진정한 부활은 썩은 몸이 새로운 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의 썩은 몸이 새롭게 창조된 몸으로 대체된 것이다.

나사로의 부활은 엄청난 기적이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는다. 다시 창조된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의 몸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같지 않다. 죽은 예수님의 몸은 나사로처럼 죽을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죽을 몸과 부활의 몸을 육의 몸과 영의 몸으로, 또 씨와 수준이 다른 열매에 비유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것도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영의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육의 몸 자체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어서 영의 몸이 되었을 때 망가진 부분들이 확실하게 고쳐져 있을 것이다. 아담 이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손이 이어갈수록 DNA의 무질서가 증가하면서 이미 많이 망가져 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 모두 지금보다 훨씬 멋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망가진 몸을 가지고 살면서, 망가진 세상에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 드린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4월 17~23일
사무엘하 4:1~7:29



목상포인트 1: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다. 레갑과 바아나가 보상을 바라며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 다윗은 사울 가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공의에 따른 판단을 한다.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공의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묵상하자.

▶사울의 군사령관이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 사울 가문이 급격히 몰락한다. 약 2년 동안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피살된 소식을 듣고 실의에 빠진다.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인 레갑과 바아나는 전세가 다윗에게로 기울자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친다. 보상을 기대했던 그들의 뜻과 다르게 다윗은 그들을 ‘무죄한 피를 흘린 악인’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선고한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가 충성을 다짐하고,

다윗은 그들과 언약한다.

목상포인트 2: 지도자의 필수 요건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다. 오랜 연단 과정을 거친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임해 승리한다. 그러나 언약계를 옮겨 오면서는 규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해 낭패를 당한다. 다윗의 승리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오랜 분열과 갈등 끝에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이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 수도로 삼고,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다윗성을 짓는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다. 블레셋이 침공해 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쟁해 대승을 거둔다. 이어 다윗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아 옷사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 언약계는 오벧에돔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는데, 그 기간에 오벧에돔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목상포인트 3: 사울의 딸 미갈은 기쁨의 잔치에서 스스로 소외된 인물이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멸시해서 은총 얻는 삶에서 멀어지고 만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 그분의 성전 짓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다. 하

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다윗과 타인의 시선을 더 중시하는 미갈을 대조해 묵상하자.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뛰놀며 춤을 춘다. 언약계가 무사히 도착한 것에 감사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언약계 이동에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체통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난한다. 이후 미갈은 다윗으로부터 외면당한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워 주리라고 약속하신다. 다윗은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선과 악을 빠르게 분별하는 지도자였다. 내가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판단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유익으로 여긴 일이 있다면 회개하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거듭 묻고 하나님 지시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자. ▶기쁨의 잔치에서 소외되는 미갈이 되지 않도록,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아들을 위해서!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젊을 적 교만한 신양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을 위하는 척하며 정죄하고, 사랑하는 척하며 위선을 떨었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들의 학창 시절, 말씀을 부리는 모습이 창피해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이럴 거면 교회에 나오지마!”라는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 아들은 그날 이후 교회에 발길을 끊었고, 50세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이 망한 이후로 술과 담배를 늘 손에 쥐고 삽니다.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불러 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며느리와 이혼도 했습니다. 아들의 삶이 모두 제 탓 같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있을 제가 준 상처가 잘 아물도록 기도해주시고,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시고, 아들이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라떼는 말이야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멘토님!”

뻔한 말이지만 바야흐로 ‘콘텐츠 시대’다. 콘텐츠라고 하면 흔히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게임’,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떠올릴 것이다. 물론 맞다. 산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창작물을 콘텐츠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눕기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의 창으로 뉴스, 영화, 드라마, 웹툰, 유튜브, 팟캐스트 등의 콘텐츠를 소비한다. 콘텐츠 과잉과 무의식적 콘텐츠 소비가 만연한 사회다. 미국 리서치 회사 디스카우트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만지는 횟수가 2617번이라고 한다. 그 횟수만큼 콘텐츠를 보거나 만드는 플랫폼에 참여한다. 나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분별하기도 전에 이미 디지털 미디어가 내뿜는 수많은 콘텐츠 정글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콘텐츠들은 폭력과 선정성, 반기독교적,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것도 은근히, 부지불식간에 말이다.

요즘은 콘텐츠의 의미가 산업을 넘어 우주적으로 사용된다. <콘텐츠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콘텐츠가 세상을 움직인다> 제목의 책들만 봐도 콘텐츠가 산업과 문화를 넘어 삶의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콘텐츠가 뭐길래 세상을 움직이고 자유케 한단 말인가? 문화적 창작물의 개념을 넘어서는 콘텐츠의 의미는 농담에서도 발견된다. “너의 콘텐츠는 뭐니?”라고 묻는 시대다. 이때 콘텐츠는 어떤 유형의 결과물이 아니다. 생각의 기준, 차별화된 가치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능력 등을 이르기기도 한다. 우리는 콘텐츠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콘텐츠를 지배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자신만의 콘텐츠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한다. 스펙도 쌓고, 자기계발에 열을 올리는데 어떤 분야의 뽕족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독교 청년들은 어떨까? 스마트폰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영적 분별없이 헤매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멘토로서 기독교 청년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려면 어떤 사안에 대해 인과관계와 상황을 분석 및 해석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와 변증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설득 과정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하고,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 SNS에 무엇인가 올릴 때, 카카오톡(메신저)에 글을 쓸 때, 누군가를 만나 대화할 때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반복된다.

나만의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싶은 기독교 청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말이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전에 충분한 인문학적 소양과 표현 감각을 쌓아야 한다. 당연해 보이는 선배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기를 바란다. 기독교 청년이 더 뚝뚝해야 한다. 공감대를 더 형성할 줄 알아야 한다.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

을 살펴보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 100권을 찾아 미처 읽지 못한 책들을 읽어보자. 그리고 자기 속의 생각을 자꾸만 문장으로 써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통,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용기 내 글로 옮기고, 그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좋다. 자꾸 쓰다 보면 생각의 깊이가 생기고, 설득의 논리적 구조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유쾌하면서도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이 있는 사람,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강단이 있어서 의지가 되는 사람. 그들은 많이 읽고 자꾸 쓰는 노력을 기꺼이 했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양승덕 멘토
(갈렙청년부, 홍보회사 웰컴 대표)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선물과 수용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줄 결혼기념일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는 연애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꽤 부피가 큰 장미꽃다발을 선물하곤 했었다. 장미꽃다발 선물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더라도 다소 무리해서 선물했을 때 선물 그 이상의 행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결혼했다. 많은 부부가 그렇겠지만, 이 부부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살림을 꾸려가야 했다. 귀여운 아이도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니 더 많은 재정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런저런 삶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아등바등 살고 있었다. 그즈음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게 됐다. 남편은 그동안 함께 수고한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아내가 가정의 많은 역할을 하면서 위로받거나 격려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활활 타오르던 사랑의 감정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다소 식어졌고 서로 대면대면해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종종 느낄 수 있었다. 이 상황을 반전하면서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선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큰마음 먹고 연애 때 종종 선물했던 과분한 장미꽃다발을 또 다시 준비했다.

결혼기념일 당일이었다. 평소 같이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정신없는 저녁 식사를 해치웠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식사 시간이 지났다. 폭풍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기력이 몹시 빠진 상태가 되었다. 남편은 마음속으로 ‘지금 이벤트 하기에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감춰뒀던 풍성한 장미꽃다발을 아내에게 건넸다.

“여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앞으로도 더 사랑하며 살자! 사랑해!”

누가 들어도 감동할만한 멘트를 날렸다. 그러면서 뿜 듯이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거라 내심 기대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과 함께 선물을 준비한 자신을 진심으로 칭찬해줄 거라는 부푼 마음을 갖고 있었다. 연애 때처럼 말이다.

그런데 남편의 기대와 바람이 외장창 부서져 버렸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기대했던 아내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아내는 칭찬은커녕 오히려 화를 냈다. “여보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든 것 알고 있어?”, “애기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다 못 해주는 형편인데 이렇게 돈 쓰는 게 말이 돼?”라면서 감사는커녕 경제관념 없는 남편이라고 심하게 나무랐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핀잔을 주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도 화를 냈다. “어려운 살림인 것 안다. 그래도 당신에게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했는데 칭찬은 못 할망정 화를 낸다고? 나도 우리집이 재정적으로 빠듯한 것 알고 있다고! 그래도 특별한 날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남편의 마음도 못 받아줘?”라고 했고 서로 거친 말이 오고 갔다. 결혼기념일을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던 남편의 기대와 소망이 절망스럽게 무너져 버렸다. 서로 사랑을 다짐하고 감사를 나누는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부부 싸움했던 결혼기념일로 그 해를 기억하게 되었다.

부부는 선물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게 좋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연애 때를 기억하면서 귀하고 소중한 아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무리하면 서까지 선물을 준비한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면 부부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결혼기념일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성향에 따라 현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현실은 어려워도 여전히 낭만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현실적인 삶과 낭만적인 기대가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보다는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무 현실적이면 낭만이 부족할 수 있고, 너무 낭만적이면 현실성이 결핍될 수 있다. 가정의 재정적인 여유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도 여전히 낭만과 사랑을 기대하며 선물한 배우자의 마음을 넉넉하게 받아줄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낭만적인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결혼해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연애 때처럼 너무 많은 기념일을 챙기고, 기념일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짚는 남편도 있다. 배우자와 미리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고, 연애 때처럼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다는 의미다.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깜짝 선물이나 이벤트보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게 좋다. 서로의 마음에 만족이 되는 선물로 마음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 선물에 담긴 의미를 받고, 무엇보다 오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혹여 자신에게 당장 필요 없는 선물이 라고 하더라도 우선 그의 마음을 받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럴 때 부부는 서로 수용하면서 더욱 가까워진다(잠 18:16, 잠 19:6).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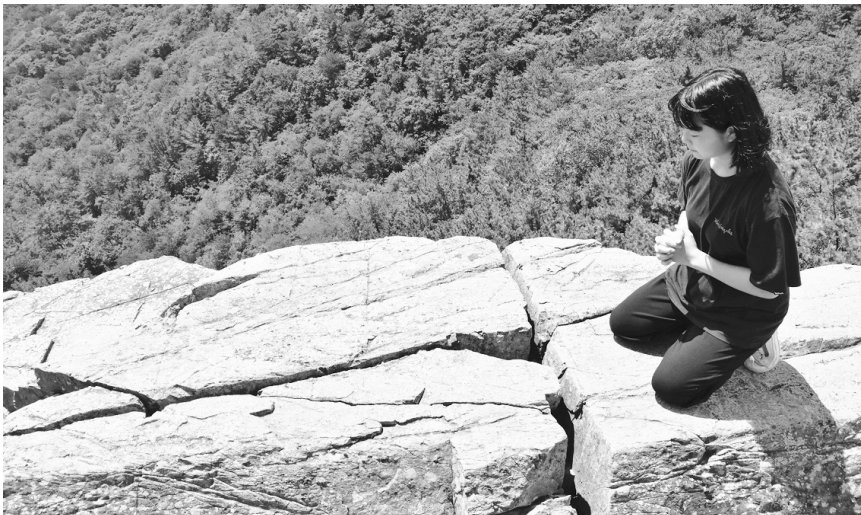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제 제법 따뜻한 기운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4월이다. 따뜻한 바람뿐이겠는가? 요즘 이른 아침 출근길, 약간 여유 있는 외출길에 형형색색

꽃들이 나와 동행한다. 말마따나 찬란한 봄이다. 그런데 봄의 기운과 아름다움은 혹독한 겨울의 바람과 추위를 견뎌낸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자유롭고, 풍성하며, 복된 신앙의 삶 역시 아무렇지 않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온갖 미움과 박해, 순교자적 삶을 통해 얻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교육여행을 떠나기를 원한다. 이번 달 신앙교육여행지는 경상남도 ‘창원’이다.

경상남도 선교는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알라도, 데이비스는 웬지 생소하다. 생소하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며, 자연스럽게 모르는 상태로 슬쩍 넘기면 절대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데이비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호주 선교부의 경남 선교는 훗날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라는 신앙의 위대한 순교자들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은 꼭 한번 둘러서 돌아봐야 하는 장소다. 그 뒤편에 조성된 호주 선교사들의 묘, 순직 및 순교 기념비, 경남지역 순교자들의 기념비는 서울의 양화진과 그 규모를 비교할 수 없지만, 기억하고



주기철 목사가 기도했던 ‘무학산 십자바위’에서 기도하는 이은우 학생(대전온누리교회).

기념해야 하는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신앙과 열정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아쉽게도 접근성이 쉽지 않아 찾은 이의 발길이 드물다. 점점 건물이 초라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기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이 찾아 보고 닦아주면서 항상 빛나는 소중한 유산으로 다음세대에게 건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담아 4월 선교여행지를 창원으로 선택했고, 4월의 첫 번째 신앙교육여행지 장소로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을 선택했다.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 안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전시된 다양한 물품들을 살펴보고 밖으로 나가 기념비 뒤편에 쓰인 글들을 읽고 있노라면 절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나올 것이다. 꼭 한번 찾아보기를 당부한다.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은 창원공원묘원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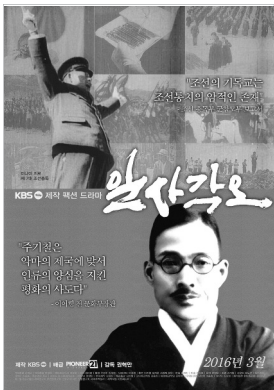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은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집요하게 요구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자의 삶을 택한 주기철 목사의 고향이다. 엄밀히 말해서 창원이 아니라 진해(웅천)지만, 지금은 행정구역이 변화되어 창원시 진해구로 부른다. 주기철 목사의 고향인 이곳에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멋지게 들어서 있다. 주기철 목사의 첫 교회였던 진해웅천교회 역시 기념관과 가까운 곳에 있다. 먼저 입구 오른쪽에 있는 임마누엘 강당에서 주기철 목사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자유롭게 기념관을 살펴볼 수 있다. 기념관은 주기철 목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사진 자료와 인형 자료 등 볼거리가 많아 관람자가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주기철 목사의 흉상을 비롯해 무학산 십자바위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왜 우리는 주기철 목사를 기억해야 할까? 주기철 목사의 신앙, 목회, 순교는 오늘 나에게 어떤 따뜻한 바람과

은혜, 자유 그리고 풍성함을 주었는가?’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주기철 목사는 1923년 봄부터 경남노회 소속 양산읍교회 조사(助事)로 부임해 첫 목회를 시작했다. 신학교 졸업 이후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시무했다(1926년). 1931년 문창교회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창원(마산)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문창교회 시무 당시 경남노회에서 노회장에 피선되고, 이듬해 1월 제31회 경남노회에서 노회장에 재선되었다. 교계의 지도자로 인정받으면서 ‘명설교가’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평양신학교 부흥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설교 요청에 응한 일도 창원(마산)에서의 목회 중에 일어난 일이다. 좋은 기억만 가진 것은 아니다. 1933년 부인(안갑수)이 갓 돌이 지난 막내(주광조)를 남기고 병사했고, 그해 부친(주현성)도 세상을 떠났다. 목회적 성공과 개인적 아픔이 동시에 펼쳐졌던 시기에 무엇보다 기도에 매진했던 주기철 목사를 떠올릴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곳이 바로 ‘무학산 십자바위’다. 무학산 십자바위는 ‘기도바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차디찬 십자바위 위에서 부르짖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신사참배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순교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문창교회에서 무학산 기도바위까지 가깝지 않은 그 길을 걸어 올라다니시고, 또 확 트인 산 중턱의 바위 위에서 밤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던 주기철 목사의 신앙 위에서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을 맘껏 뿜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 찬란한 봄, 무학산의 아름다운 꽃들과 상쾌한 봄 내음 맡껏 들이마시면서 십자바위까지 올라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기도하는 4월의 한 날을 보내는 건 어떨까?

영화로 만나는 ‘신앙의 선배’



‘일사각오(一死覺悟)’
권혁만 감독 / 2016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의 삶을 영화 ‘

일사각오(一死覺悟)’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주기철 목사는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웅천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주기복이었는데, 세례 받고 ‘기독교를 철저히 믿는다’는 뜻의 주기철로 바꾸었다. 그의 평생은 이름처럼 흘러갔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며, 신앙을 철저히 지켰다. 주기철 목사는 웅천 개통학교를 졸업하고, 평안북도 정주군 오산학교로 유학갔다. 졸업 후에는 ‘험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1915년 조선기독교대학상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안질이 심해져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 웅천으로 돌아왔다. 웅천교회 집사로 사역하며 1919년 3.1운동을 벌이다 헌병대에 연행되기도 했다.

주기철 목사의 본격적인 목회 활동은 1926년 부산 초량교회의 목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초량교회에서 목회하던 주기철 목사는 말쑥의

다시 만나는 주기철 목사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조직을 정비해 당회와 제직회를 확장했다. 경남성경학교 세워 교육에 힘쓰기도 했다. 손양원 목사, 한상동 목사 등도 경남성경학교에서 주기철 목사에게 성경을 배웠다. 주기철 목사는 1931년 9월 마산 문창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했고, 전국에 이름난 목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36년 여름, 주기철 목사가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했다. 주기철 목사가 부임하기 1년 전부터 평양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있었다. 일제는 평양교회와 신학교를 괴멸했다.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결국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지만,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신앙을 지켰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당했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를 설득하기

위해 풀어줬는데, 그의 신앙을 꺾을 도리가 없었다. 점점 구속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엄청난 고문이 이어졌다. 1940년 2월 7개월 만에 석방되어 평양으로 돌아온 주기철 목사는 산정현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를 연설하며 신사참배 반대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를 뒤 일제는 다시 주기철 목사를 구속했다. 주기철 목사는 5년 동안 이어진 기나긴 수감 생활과 온갖 잔혹한 고문에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으며 신앙을 지켰다. 결국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병사했다.

4월, 주기철 목사의 올곧은 신앙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가족과 함께 영화 ‘일사각오(一死覺悟)’를 보고, 주기철 목사의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으로 신앙교육여행을 떠난다면 주기철 목사의 생애와 신앙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라!”



지난 12일 서빙고 수요일여성예배에서 아동인권운동가 케이티 파우스트(사진 왼쪽)가 특강하고 있다.

아동인권운동가 케이티 파우스트 특강

세계적인 아동인권운동가 케이티 파우스트(Katy Faust)가 방한(訪韓)해 아동인권 옹호를 위한 특강을 했다. 지난 4월 12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에서 케이티 파우스트가 ‘성과 결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주제로 특강했다. 케이티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한 명의 엄마와 한 명

의 아빠) 안에서 자라는 것은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동성혼, 동거커플, 대리모 출산, 난자와 정자 기증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결코 건강한 자아와 정체성을 가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선희 집사(강남E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세상의

사상과 구조들에 아이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케이티 파우스트는 비영리 아동인권단체 ‘Them Before Us’의 설립자다. ‘아이들(Them)을 성인(Us)보다 먼저 생각하자’는 뜻으로, 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가지는 권리 옹호를 위한 NGO 단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유대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4월 18~20일, 대전 ‘비저니어링’ 집회

대전온누리교회에서 2023 상반기 ‘비저니어링’ 집회를 개최한다. 4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대전온누리교회 본당(6층)과 세종교육관 본당에서 열린다. 대전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비저니어링 집회에서는 류모세 선교사(이스라엘투데이 편집장, <열린다 성경> 저자)가 ‘유대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대전온누리교회는 선교 영성 회복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비저니어링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도육환 목사(영종온누리교회 담당)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11월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희망콘서트 ‘함께 사는 삶’

4월 18일 오전 11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

온누리복지재단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함께 사는 삶’을 개최한다. 4월 18일(화) 오전 11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막 오른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소속 장애인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다.

희망콘서트 ‘함께 사는 삶’은 1부

감사예배, 2부 식사, 3부 희망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감사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희망콘서트에는 소프라노 이슬, 황후령, 바리톤 홍승범, 테너 박준석, 하모니카 최상미, 뮤지컬 배우 정선아 등이 출연한다.

문의: 02-3215-3411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P.P 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4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1호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문의: 02-2182-9114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남대문희망공동체의 특별한 부활절

연합찬양 및 쪽방촌 지체 17명 성경필사 시상

남대문희망공동체가 특별한 부활절을 보냈다. 지난 4월 9일(일) 옐립하우스(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처소)에서 쪽방촌 지체 50여 명과 함께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쪽방촌 지체들과 온누리여성선교함합단이 연합찬양을 했다.

성경필사 시상도 했다. 쪽방촌 지체 17명이 지난 2월 21일부터 시작한 <요한복음서> 필사를 마무리하고 상장과 선물을 받았다.

박은태 팀장(남대문희망공동체)

은 “부활절 연합찬양과 성경필사 시상을 통해서 쪽방촌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쪽방촌 지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남대문5가 일대(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배공동체다.

문의: 010-2495-2319

선한울타리 콜링세미나

4월 16일 오후 6시 서빙고 꿈아이홀

선한울타리사역팀(사회선교부)에서 ‘선한울타리 콜링세미나’를 개최한다. 4월 16일(주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아이홀(신관 2층)에서 열린다. 선한울타리사역팀은 보육원 아동과의 결연 및 자립준

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돕고 있다. 이번 선한울타리 콜링세미나에는 보육원 아동 및 퇴소 청년, 위기 청년을 돕고 싶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소개할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

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두플러스 1년 구독 이용권 출시

‘스마트 플랜’과 ‘프리미엄 플랜’ 판매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 ‘두플러스’에서 1년 구독 이용권 ‘스마트 플랜’과 ‘프리미엄 플랜’을 출시했다. 이용자가 더욱 손쉽게 구매하고, 선물할 수도 있다. 해외 거주자나 선교사들도 두플러스 이용이 한결 쉬워졌다.

‘스마트 플랜’은 두플러스에서 제

공하는 모든 QT 및 도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플랜’은 이에 더해 묵화자, 신학생, 리더들에게 유용한 <생명의삶 PLUS>, <묵화와신학>, <그말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34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4월 30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온라인

창조신앙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1~4주), 오후 5시(5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3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창조신앙스쿨은 창조신앙이 기독교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유와 창세기의 역사성을 배운다. 진화론 패러

다임에 갇혀 있는 현실에서 거짓된 이론과 타협이론의 정체를 밝히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전능하시니 천지를 지으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다’,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185-3542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9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s.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권사칼럼

아름다운 순종의 행진



김명희 권사
(사랑채버 어머니 대표)

온누리 사랑채버가 창립된 지 24년 되었다. 사랑채버의 첫 번째 연주를 4월 장애인주간 특순으로 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께서 사랑채버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라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해 주셨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 엄마가 없는 세상에 아이가 남아 있는 것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 붙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납덩이 같은 슬픔의 무게에 절절매는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자고 할 수 있을까? 혹시 ‘비교적 경한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라서 저런 말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상처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참으로 긴 세월 사랑채버에서 활동하면서도 그저 고마움에 따라다닐 뿐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몇몇 어머니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불러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지난 2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정말 강력하게 전해지면서 회개가 터졌다. 나는 하나님이 부모의 인생을 망하라고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엄마들을 향한 어쭙잖은 인간적 연민이라는 벽

을 뚫지 못했다. 24년 동안 사랑채버 어머니 대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 나르지 못한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권을 드렸다.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사랑채버 엄마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사랑채버 모임에 가서 선포했다. 온라인(Zoom)으로 큐티나눔방을 개설할 거니까 신청하고, 공동체 성경읽기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다섯 분이 신청하셨다.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인 저녁 9시 30분으로 나눔 시간을 정하고 나를 포함한 6명이 첫 모임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 8:34b)고 하셨는데, 우리는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돌아봅시다. 결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는 훈련을 같이해 봅시다. 혼자서는 외롭고 버겁습니다. 서로 잡아 주고, 일으켜 세워 주고, 밀어주면서 가 봅시다.”

다들 기뻐하며 마음을 모아주셨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예배에서 이종락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 모임에서 다들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은혜를 나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시면서 꿈꾸셨던 꿈, 우리 함께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그분의 선하신 열심이 책임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어둠에서 빛의 가문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 자녀와 청지기인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울며불며라도 그 길을 가자고 결단했다. 부디 이 아름다운 순종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Armanj Hanna 목사
(NLS교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월 6일 엄청난 지진이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망자가 5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의 지원 덕분에 가지안테프와 하타이(안디옥)에 있는 두 자매 교회와 함께 피해 가족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호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그에 따라 시리아 난민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카흐라만마라쉬, 이스칸다룬, 아디아만 등 진앙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82가정을 도울 수 있었고, 아직 25가정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대다수가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도운 가정마다 빠짐없이 충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Peter’s Boat’ 제자훈련과정 훈련생들을 가정마다 배치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최대한 후속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복음에 상당히 열려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귀담아 듣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아랍계 시리안들은 쿠르드계 시리안들에 비해 복음에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진 이후 우리가 도운 많은 아랍계 가정이 복음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저희가 8년 동안 예배드렸던 교회 건물이 이번 지진으로 구조가 불안정해서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가 오래된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데 모든 기둥에 금이 갔습니다. 건물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스탄불에서는 불특정 아파트 건물이 작은

지진이나 구조적 문제 등으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건물이 사람들이 모이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가끔 일요일에 웨딩홀을 빌려 예배와 성찬을 합니다. 건물을 빌릴 수 없는 일요일에는 코로나19 시대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할 새 건물을 구하는 게 절실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만나서 교제도 해야 합니다. 임차할 후보지가 몇 군데 있는데, 이 스탠볼에 적합한 규모와 위치에 있는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를 짓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진 구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 네 명으로 구성된 지진구호팀을 계속 운영하며 피해 가족들에게 후속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새 교회 장소를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임차할 적당한 장소나 건축할 적당한 땅으로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팀이 계속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모두 듣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세이



강지영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차세대)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깊은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 기간이 더욱 감격적인 이유는 죽음의 깊은 고난을 통과해서 생명의 놀라운 사랑을 안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다.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한 십자가의 고난 안에 담긴 사랑은 죽음이지만 생명이요, 슬픔이지만 영원한 기쁨이 되어준다.

몇 해 전부터 사순절을 보내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절기’라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40일의 시간이 지나면 파스한 바람에 꽃이 피듯 새 생명이 돌아나는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기 때

문이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부활의 기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아마 일만 달란트 빛진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같을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다가올 여름사역을 준비하며 차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며 고백할 찬양 가사를 묵상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 13:1).

이 말씀을 읽으며 한참 동안 시선이 고정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 한편에 저릿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차세대들과 함께 고백

예수님처럼!

할 찬양 가사를 적어보았다. <키즈벤처 15집> ‘예수님처럼’이라는 찬양이다.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 예수님 섬김 언제나 나를 가르치시니 예수님만을 영원히 나도 따라갈래요 /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배워서 영원히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자 사순절을 보내는 마음의 결단이다. 1년 365일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

어서 더욱 감사하다.

4~5세 차세대들에게 종려주일 설교를 하던 중에 예수님 복장을 한 선생님과 제자 복장을 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호산나 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했다. 아이들과 함께 이 고백을 드리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마치 2천 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압도되어 “호산나,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를 고백하며 한참 울었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한다. 또다시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랑의 삶, 순종의 삶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x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초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중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매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 (추후 주일 연습 재계)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010-8285-6435 온누리M센터 물품 기증 요청 모집: 디지털카메라, 수동카메라, 노트북, 컴퓨터(포토샵 교육용) 용도: 귀국하는 이주민 형제들의 사진관 개업을 위한 기초작업훈련 문의: 안산 온누리M센터(010-7550-2425) 온누리선교재단 사원 모집 1. 서빙고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학력: 2년제 이상 자격: 경력 5년 이상 우대: 기업회계 경력자 2. 서빙고총무팀 사원 채용 업무: 노무, 인사관리 학력: 고졸 이상 우대: 엑셀 능숙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CMN 서빙고 의료데스크 운영 일시: 매주 주일 오전 9:00~오후 2:00 장소: 서빙고 본관 1층 로비(러빙핸드실 앞) *4월 23일 주일부터 운영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음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음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감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OBC 빌립보서 양재 목요 저녁반 일시: 5월 4일~6월 15일 매주 목 장소: Zoom 등록: 5월 10일까지 신청: 아이스쿨 문의: 02-570-7438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일시: 5월 14일~6월 18일 매주 주일 오후 3시~5시 30분 등록: 5월 21일 신청: 아이스쿨 회비: 5만 원 문의: 010-5217-3060
---	--

부 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수 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 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 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 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 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앨버틴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미남부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 Tokyo, Japan 오사카 김철혁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걸 김승환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만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도옥환 림문봉 문영재
박근범 박성오 박성은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해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선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정훈
신원석 스티브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형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윤길중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외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지훈 조동욱
조병홍 최광호 조준우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정현 최현중 추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석수 한충희
홍기환 하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신미 최재윤 카와 무
라 요시키

◆목사(준전임)
구해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용산 김은하
김진숙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마짜누봉
박시마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생루아네 사가르 에리카스톨즈
윌리엄 이민영 아이라프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제인양
존페이즈 채예미 최정현 하효경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권대식
김영신 김현경 김도배 김동규
권여람 김기희 김반석A 김반석B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신 김예찬 김윤아 김의연
김종균 김주영 김정부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혜 김성배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예슬
박성원 박성훈 박세미 박예슬
박은혜 박의력 박유진 박예린
배명지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재 신기현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안류택 윤종연 윤혜진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부 윤종연 윤혜진
이난단 이도열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승희 이시하라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정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성원 정성민
정영원 정주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유성
최구경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해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라 홍승기 황연진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환 권철준
김영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상섭
김성순 김성순 김수광 김 완
김용성 김 원 김용배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의득 김원규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근 김창욱 김철수 김태재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의 박보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석호
박영태 박용욱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열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식 송영범 송영태 송영식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임태민
오성원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유 형
윤기웅 윤성열 유의준 윤영성
윤영오 윤현우 윤정희 이상기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삼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영하 이우곤 이용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준순 이창남 이 철
이한영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창하 정광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영관 정보민 정승룡
정영원 정용화 정재탁 정희훈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우영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조수일 주용일
최승철 최준구 차준현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순서
최진석 최정규 최정하 최종길
최희영 편무주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중대
한형석 함공식 함순조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황제규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진외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김대환 권오승 권오현 권오형
김정호 김경도 김경하 김광하
김광준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명세
김동원 김두진 김민준 김민찬
김성현 김성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규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문갑 김지현
김영순 김영욱 김영국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영 김재일 김경민
김준영 김종환 김종호 김준규
김지훈 김창성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경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희수 김희규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국 남윤창
남정진 남정진 남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태현 박동현 박두원
박영국 박병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우형 박일규 박일민 박일환
박재두 박종현 박지수 박지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용근
박용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성원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두환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철우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갑섭 심효무 심효돈
안동혁 안상현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준홍 양홍식 오 명
오범규 오상복 오성훈 오성태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유석우 유석주
유수민 윤영자 이경호 이경준
이광순 이규진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을 이상준
이서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이정규
이정근 이재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열 이태환 이하일
이해달 이한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영 임의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장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태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용화
정일영 정재복 정진호 정태명
정우진 조대식 조대희 조병환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창규 조재광 진종구 최민철
최봉민 최상근 최석민 최성환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현 한복규
최정민 최정호 한창희 한충희
한필규 합일섭 합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남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한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김내우 강순열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철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국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재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수 조익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유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는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희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슬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화정
박지훈 박지영 박아령 박요섭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우경진 우정희 우영준 우은혜
유재경 유정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황지훈

해외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길탁 이민욱 요시하라
마루 전현규 정호석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미타 마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영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영 이종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병성
김상훈 김인우 김성영 김성진
김정운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익
김정환 박종훈 박찬민 박순욱
박효민 배성우 변갑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병중
유정훈 이경호 이마범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재홍 전상현
전종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환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 정 J o e 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결혼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김정우, 이연(시온감리교회 장로)의 아들
김수빈(새소망교회)
조은식, 김영옥(온누리교회)의 딸
조은혜(온누리교회)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이윤하, 이은옥(영천새중앙교회 집사, 집사) 아들
이주혁(온누리교회)
조병현, 이규영(온누리교회 장로, 권사) 딸
조하은(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www.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식사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십일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기파음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광고

■ 소천

4/7(금) 고양은평 하동진 성도 모친상 고 박자춘
4/9(주일) 성동광진 김광수 집사 모친상 고 이점분
4/10(월) 강남D 고 오병주 성도
4/10(월) 여호수아 장윤정 성도 모친상 고 조성용
4/13(목) 노원 김유진 성도 부친상 고 김태범

■ 광고

두란노해의선교회 간사 채용 공고
모집: 재정 담당 간사 1명, 행정 담당 간사 1명
형태: 전임간사(정규직)
자격: 세례교인, 경력 무관 및 경력 우대
우대: 장/단기, FA 선교 경험자 우대, 재정 업무 경력자
근무지: 용인시 처인구 추계로 62 비전빌리지 3층
조건: 주 5일(화~금, 40시간), 급여: 본기관 규정에 따름
마감: 5월 25일까지
서류: 기관 양식의 채용지원서
접수: tim@tim.or.kr
문의: 070-4464-8102

du+ duplus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두플러스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 ~4.30 까지



두플러스 프리미엄 플랜	두플러스 스마트 플랜	두플러스 QT 플랜
1년 이용권 240,000 원 20% 192,000 원	1년 이용권 180,000 원 20% 144,000 원	1년 이용권 108,900 원 12% 95,000 원
· 세대별 / 언어별 QT · 전 도서 무제한 열람 · 생명의삶 PLUS · 목회와신학 · 그말씀 등 과월호까지 · 설교 자료와 성경 및 주석 검색	· 세대별/언어별 QT · 전자책과 오디오북, · 두플러스 Only 콘텐츠까지	· 생명의삶 · 새나 · 예나 · 예조 · 영어 QT지까지 · 역본 대조와 오디오 QT 제공



두플러스
구독 이용권 출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두플러스 이용권을 선물하세요!

- ★ 이용권을 받으시는 분이 직접 가입,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구독 이용권 구매 문의 · 각 두란노 서점



구독 및 이용 문의 **02.2078.3234** 카카오톡(@두플러스)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Q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